

여성신문 신년호 새해덕담

박영숙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정해년은 600년만의 '황금돼지해'라고 출산을 부추기는 등 긍정적인 사회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희망적이다.

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세상을 향한 여성들의 활기찬 행진의 기수로서 앞장서온 여성신문이 새해 한 해에 주력해야 하는 과제는 '빈곤의 여성화' 해소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여성문제의 우선과제는 경제적 평등이다. 우리나라의 성별고용평등지표가 55.7로 여성의 고용상 지위가 남성의 절반이며 남녀소득비는 0.46으로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직업훈련과 고용지원 서비스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경제대국 10위권의 국가로서 삶의 질은 세계 26위, 여성권한은 53위에 머물고서야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정해년을 여성의 경제적 자기 몫 찾는 해로 자리매김하자.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

경제적 빈곤을 불균형의 벽을 뛰어넘는 여성이 경제강국이 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여성들의 역량에 부응할 수 있기를

06-12-26

여성신문 신년호 새해덕담

Hand

32822

박영숙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정해년은 600년만의 '황금돼지해'라고 출산을 부추기는 등 긍정적인 사회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희망적이다.

여성운동이 필요 없는 세상을 향한 여성들의 활기찬 행진의 기수로서 앞장서온 여성신문이 새해 한 해에 주력해야 하는 과제는 '빈곤의 여성화'해소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호주제 폐지 이후의 여성문제의 우선과제는 경제적 평등이다. 경제적 성별불균형의 벽을 유지하는 한 여성이 경쟁력이 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새시대에 부응할 수 없다.

정해년을 여성의 경제적 자기 몫 찾는 해로 자리매김하자.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는가?